

#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제약기반적 분석\*

박 효 명  
(전남대학교)

Park, Hyomyong. 1997. A Constraint-based Analysis of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of Korean. *Linguistics*, 5-1, 99-127. In this paper,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are analyzed and described within the framework of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in its most incarnation as HPSG III. Phrasal types of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are first classified, albeit partially, wrt their adjectives and complete intransitive verbs. Secondly, postpositions such as *-i/-ga* and *-eun/-neun* are reanalyzed, differently from the traditional point of view that the postposition is only a case marker, and described as a postposition, a constituent with which some kind of pragmatic meaning is involved. Thirdly, the feature structure of each type of predicate phrases is provided as a kind of constraint of its own. Finally, multiple inheritance, structure sharing and some universal principles brought together to fully describe these constructions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the description avoids some of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transformational analyses of these construction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1. 서론

국어의 형용사와 완전자동사는 두 개의 주어와 결합하여 이중주어 구문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입각하여 통사적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어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의 틀 안에서 언어기호의 유형(type)과 그 제약(constraint)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그 결과로 통사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를 통합한 기술이 오직 통사적 분석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언어 현상을 잘 포착하여 기술할 수 있음을 보이게 된다.

---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2.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의미적 속성

국어는 주어와 동사구의 결합으로 문장을 형성한다. 또한 형용사구도 주어와 결합하여 문장을 이룬다. 이 때에 동사구와 형용사구는 술어구의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用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이중주어 구문과 관련된 용언인 형용사구와 완전 자동사구의 통사-의미적 속성을 차례로 파악하여 이 구문을 기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2.1 형용사구와 이중주어 구문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술어구로 문장을 형성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사실이다. 특징적으로 국어의 형용사는 이와 다르게 표면상으로 보아 두 개의 주어와 하나의 술어구가 결합하여 서술문을 형성한다.

- (1) a. 코가<sub>SUBJ1</sub> 길다.  
b. 코끼리가<sub>SUBJ1</sub> 코가<sub>SUBJ2</sub> 길다.

(1a)는 형용사가 하나의 주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형성한다. 이를 단 주어 구문이라 하자. (1b)는 이외에도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는 구조로서 하나의 형용사가 두 개의 주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형성한다. 이는 다른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으로 이를 이중주어 구문이라 한다.

(1b)와 같은 구조가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은 한 문장은 하나의 주어를 가진다는 언어보편적 사실과 주어라는 문법적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형태적 정의(morphological definition)에서 비롯한다. 전통적으로 국어의 주어는 명사에 주어를 나타내는 '-이/-가'와 같은 조사/토씨가 첨가되어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라 어떤 명사라도 '-이/-가'가 첨가되면 모두 주어이게 된다. 이런 형태적 정의에 의하여 (1b)는 두 개의 주어를 가진 적형적인 문장인 것이다.

---

2. 조사/토씨 대신에 격조사(格助詞)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격(case)은 본래 인구어(Indo-European language)의 곡용(declension)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어와 일어는 명사 자체의 곡용 현상이 없는 점으로 보아 격조사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 인구어, 예컨대 라틴어, 노어, 독일어 등은 명사의 격변화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따로 격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는 반면에 국어는 명사의 뒤에 오는 후치사인 조사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주어라는 개념은 문장 내에서 서술을 완성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문법적 개념으로서 목적어, 보어 등과 같은 구성성분과의 통사적 관계 내지 기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술문의 주어는 술어-논항(predicate-argument) 구조에 있어서 논항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가와 같은 명사가 주어가 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그 밖의 조사 -은/-는 이 명사에 첨가되어도 주어의 기능을 한다는 입장을 수용하여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어지는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문장(혹은 절)은 몇 개의 목적어 혹은 보어를 가질 수 있으나 주어는 하나라는 것이 범언어적 사실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이를 바탕으로 문장의 구조를 기술하여 왔다.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주어'라는 언어보편성에 충실하려는 입장에서 국어의 특유한 구문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서 정수(1996: 11-99)에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몇 가지로 분류된 주요한 연구들의 문제점과 장단점도 아울러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변형을 문법적 기제(mechanism)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변형이론의 등장으로 격대체(case alternation)<sup>3</sup>에 의하여 설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요약하건대 (1b)의 주격 '코끼리가'는 본래 소유격 '코끼리의'에서 표면구조 상에서 격이 대체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문장이 오직 하나의 주어를 가진다는 주장을 반영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연구는 이중주어 구문을 주제-주어-서술어의 구조로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은 첫째 국어학자들의 오랜 논의의 결과 거의 정설로 굳어져버린 '-이/-가'는 주어와 결합하는 격조사이며, '-은/-는'은 주제어에 붙는 조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 Li & Thompson (1976: 483)이 분류한 바와 같이 한국어는 주제어와 주어가 한 문장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언어라는 주장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예컨대 (2)에 보이는 바와 같다.

(2) 코끼리는 코가 길다.  
 주제            주어            형용사

문장의 머리에 나온 명사에 조사 '-은/-는'이 붙으면 이 명사는 주어가 아니라 주제(topic)이며, 다음에 오는 명사에 조사 '-이/-가'가 붙는 것은 주

3. 격대체는 본래 명사가 격을 부여받는다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격을 부여받으면 반드시 인구어처럼 명사의 곡용현상이 일어나야 하지만 국어의 명사는 그렇지 않다. 이 점에서 주어에 첨가되는 후치사를 주격조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이중주어 구문의 격대체에 의하여 기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이다.

어로 기술한다. 그래서 형용사는 두 개의 주어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주어틀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술어로 쓰인 형용사가 하나의 주어만을 가진다는 언어 보편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설명한다.

그러나 (1b)와 (2)는 구성성분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조사의 선택에 따라 약간의 의미적 차이를 보여줄 따름이다. 위에서 본 주어의 형태적 정의에 따르면 (1b)는 (2)와 다르게 앞의 명사에 조사 '-가'가 첨가되어 이 명사는 주제가 아니라 주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형용사는 두 개의 주어틀 가지게 된다. 이는 이중주어 구문을 주제-주어-서술어의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무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제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주제란 본래 문장의 구성성분인 주어나 목적어에 얽히는 담화기능(discourse function)으로 의미적 정보의 일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주제는 통사적 개념이 아니지만 두 개의 주어틀 가진 문장의 의미적 특성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장 석진(1993)에 따르면 주제는 비단 주어만이 아닌 목적어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제는 대부분 문장의 머리에 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덧붙여 주제를 밝혀 주는 조사 '-은/-는'은 문장 가운데 들어 있는 명사에 첨가되면 그 일차적 기능인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 |  |  |
|--|--|
| <p>(3) a. <u>코끼리는</u> <u>코가</u> <u>길다.</u><br/>                 주어  주어-2<br/>                 주제</p> | <p>b. <u>코끼리가</u> <u>코는</u> <u>길다.</u><br/>                 주어  주어-2<br/>                         대조</p> |
| <p>c. <u>코끼리는</u> <u>코는</u> <u>길다.</u><br/>                 주어  주어-2<br/>                 주제  대조</p> | <p>장 석진(1993: 50-51)</p>   |

(3a)와 (3b)를 종래의 입장에 따라 비교하면 각기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하나의 주어만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3c)는 주어가 하나도 없게 된다. 국어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일은 예상가능한 일이지만 이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다. (3)은 전체적으로 조사의 첨가에 의하여 명사를 주제/주어로 분류하는 것은 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개념을 혼용하여 분류한 것으로 그 결과가 잘못임을 보여준다. 위 예들은 명사에 조사 '-이/-가'가 첨가되면 그 명사는 반드시 주어가 되는 반면에 조사 '-은/-는'이 첨가되면 주제 혹은 대조라는 의미적 정보를 추가할 뿐 그 명사가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명사에 첨가되는 조사 -이/-가는 명사로 하여금 주어로 기능하게 하지만

그 의미적 기능은 초점(focus)이다. 초점은 주제와 함께 의미적 정보의 “신/구, 미지/기지, 화·청자의 의도, 관심의 중심 등이 규제하는 담화의 기능” (장 석진, 1993: 83)이다.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가 있다면 이는 주제이다. 반면에 공유하지 않은 정보는 초점의 대상이 된다. 이 초점의 대상이 되는 구성성분은 음성적으로는 강세를 받으며, 통사적으로는 분열문(cleft sentence)의 슬부의 기능을 한다. 또한 의미적 정보 면에서 볼 때 초점은 생략되거나 조용사(anaphor)를 포함한 대명사로 약화되지 않는 특성도 함께 가진다.

다음은 조사 -이/-가와 -은/-는이 한 문장 내에서 교차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여준다.

- |   |  |
|---|--|
| (4)a. <u>코끼리</u> 는 <u>코</u> 는 길다.<br>제1주어 제2주어<br>주제 대조 | b. <u>코끼리</u> 는 <u>코</u> 가 길다.<br>제1주어 제2주어<br>주제 초점 |
| c. <u>코끼리</u> 가 <u>코</u> 는 길다.<br>제1주어 제2주어<br>초점 대조    | d. <u>코끼리</u> 가 <u>코</u> 가 길다.<br>제1주어 제2주어<br>초점 초점 |
| e. <u>코</u> 는 <u>코끼리</u> 는 길다.<br>제2주어 제1주어<br>주제 대조    | f. <u>코</u> 는 <u>코끼리</u> 가 길다.<br>제2주어 제1주어<br>주제 초점 |
| g. <u>코</u> 가 <u>코끼리</u> 는 길다.<br>제2주어 제1주어<br>초점 초점    | h. <u>코</u> 가 <u>코끼리</u> 가 길다.<br>제2주어 제1주어<br>초점 초점 |

(4)는 장 석진(1993: 83-87)의 예문 (168)을 표기만을 수정한 것이다. 이들은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의미적 정보를 가장 잘 보여준 예이다. 주어의 중출(重出) 현상과 그 의미적 정보의 일부인 주제, 초점, 대조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어로 쓰이는 명사들이 가지는 화용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제, 대조, 초점이 서로 상보적 분포(complementarity)를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4d)와 (4h)에서 두 개의 초점이 나타난 것은 각 주어의 화용적 의미로 초점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담화구조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이중주어 구문은 통사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형용사와 두 개의 명사구인 주어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리고 이 명사구들은 앞에서 언급한 주어의 형태적 정의를 포함하여 어떠한

후치사(postposition)와 결합하더라도 통사적으로 주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명사구들은 각기 명사가 가지는 의미와 후치사가 나타내는 화용적 의미인 주제, 초점 혹은 대조라는 의미적 정보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핵어인 형용사와 두 개의 주어가 통사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확인할 차례이다.

- (5)a. [목이]<sub>SUBJ1</sub> [마르다]<sub>AP</sub>.  
 b. [내가]<sub>SUBJ1</sub> [목이]<sub>SUBJ2</sub> [마르다]<sub>AP</sub>.

(5a)는 서술적 형용사구가 단주어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 결합은 주어가 하나이므로 주어-술어구의 규칙으로 간단히 기술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5b)의 문장은 그 형성 과정이 (5a)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과정을 기술하려면 주어가 둘이므로, i) 형용사구를 포함하는 술어구가 어느 주어와 먼저 결합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ii) 이러한 결합의 순서가 결정되면, 이 일차적인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가 통사적으로 어떤 유형인가를 결정해주어야 한다.

형용사구와 결합하는 주어의 순서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제1주어와 제2주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관형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 (6)내가<sub>SUBJ1</sub> 목이<sub>SUBJ2</sub> 마르다.      (7)영수는<sub>SUBJ1</sub> 발이<sub>SUBJ2</sub> 넓다.  
 a. ?내가<sub>SUBJ1</sub> 마르다.                      a. ?영수가<sub>SUBJ1</sub> 넓다.  
 b. 목이<sub>SUBJ2</sub> 마르다.                      b. 발이<sub>SUBJ2</sub> 넓다.  
 c. ?내가<sub>SUBJ1</sub> 마른 목<sub>SUBJ2</sub>                c. ?영수가<sub>SUBJ1</sub> 넓은 발<sub>SUBJ2</sub>  
 d. 목이<sub>SUBJ2</sub> 마른 나<sub>SUBJ1</sub>                d. 발이<sub>SUBJ2</sub> 넓은 영수<sub>SUBJ1</sub>

(6a)와 (6c), 그리고 (7a)와 (7c)의 결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문장의 본래 의미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그 수용성(acceptability)이 다소 떨어져 자연스럽게 못하다. 반면에 (6b)와 (6d), 그리고 (7b)와 (7d)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완벽하다. 따라서 서술적 형용사구가 일차적으로 결합하는 구성성분이 제2주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제 서술적 형용사구가 제2주어와의 일차적인 결합으로 생겨난 술어구가 어떤 유형인가를 살펴보자. 이 결합은 그 자체로써 완성된 단주어 구문인 문장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유형은 문장(=S)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두 개의 주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결합으로 얻어

진 유형 S<sub>2</sub>가 다시 제1주어인 NP와 결합하여 S<sub>1</sub>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구조를 S<sub>1</sub> → NP-S<sub>2</sub>라 가정하자. 그러면 이 S<sub>2</sub>는 변형이론의 내포절(embedded sentence)과 유사해진다. 그러나 S<sub>2</sub>는 국어의 내포절을 나타내는 ‘-기’/‘-는’ 등과 같은 어미가 없으며, 더구나 내포절은 이러한 NP를 주어로 가지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통사범주에 대한 종래의 정의에 따라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S<sub>1</sub> → NP-S<sub>2</sub>로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형용사구와 제2주어의 결합으로 생겨난 유형 S<sub>2</sub>의 통사적 속성을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여 그 속성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국어에는 이중주어 구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다중주어 구문도 존재한다.

- (8) a. [백양사는<sub>SUBJ1</sub> [대웅전이<sub>SUBJ2</sub> [불상은<sub>SUBJ3</sub> 크다]]].
- b. [이 학교는<sub>SUBJ1</sub> [학생은<sub>SUBJ2</sub> [질이<sub>SUBJ3</sub> 높다]]].
- c. [이 발이<sub>SUBJ1</sub> [딸기가<sub>SUBJ2</sub> [맛이<sub>SUBJ3</sub> 좋다]]].

이러한 구조에서 형용사들은 제3주어의 서술어 기능을 담당한다. 이 형용사와 제3주어의 결합은 문장인 유형으로서 제2주어의 서술적 기능을 한다. 이어서 제2주어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장인 유형은 제1주어의 서술적 기능을 한다. 이는 서술적 기능을 가진 형용사적 요소가 각 주어와 결합하여 결과되는 그 구조는 언제나 다른 주어와 결합하여 서술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우리의 국어에 대한 직관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더 보완하기 위하여 형용사와 관련된 다른 구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9) a. [[간이]<sub>SUBJ1</sub> [크다]<sub>AP</sub>]<sub>S</sub>.
- b. [[영수는]<sub>SUBJ1</sub> [[간이]<sub>SUBJ2</sub> [크다]<sub>AP</sub>?]<sub>S</sub>].
- c. [[영수(가)]<sub>SUBJ1</sub> [간 크다]<sub>AP</sub>]<sub>S</sub>.

(9a)는 단주어 구문의 주어-술어구의 구조를 가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9b)도 주어와 주어를 서술하는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품사의 분류에 근거하여 술어가 되는 부분은 [간이 크다]가 아니라 오로지 [크다]이다. (9c)는 구어체에서 제2주어의 조사가 생략된 축약형이다. 경우에 따라 제1주어의 조사도 생략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약된 [간 크다]는 주어를 서술하는 형용사구의 기능을 한다. 이런 점에서 (9b)의 [[간이]<sub>SUBJ2</sub> [크다]<sub>AP</sub>?]<sub>S</sub>로 표기된 통사적 유형은 또 하나의 주어에 대한 서술적 형용사구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장이 주어와 술어구로 이루어진다는 언어보편적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문의 구조를 S → NP-AP로 가정할 수 있다.

술어구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예는 명사와 소위 경동사(輕動詞, light verb) '-하다'의 결합이다. 순수한 우리말은 물론 한자어 그리고 다른 외래어와도 결합한다. 이들은 서로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서술어를 만들어 낸다.

## (10) N-하다 = 동사

- |         |            |
|---------|------------|
| a. 빨래하다 | a'. 빨래를 하다 |
| b. 질문하다 | b'. 질문을 하다 |
| c. 데모하다 | c'. 데모를 하다 |

(10a)-(10c)는 'N-하다'가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10a')-(10c')는 경동사와 결합하는 명사가 언제나 명사가 언제나 목적어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0a)-(10c)는 이 구조를 축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목적어를 포함한 모든 동사구는 주어와 결합하면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는 서술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11) N-하다 = 형용사

- |          |              |
|----------|--------------|
| a. 정직하다  | a'. *정직을 하다  |
| b. 안전하다  | b'. *안전을 하다  |
| c. 스마트하다 | c'. *스마트를 하다 |

형용사 유형은 (11a')-(11c')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사처럼 목적어와 경동사로 분리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의 주어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술어구의 역할에 그친다. 명사와 경동사의 결합은 만들어지는 품사에 따라 그 구조를 달리하는 술어구의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1)의 '정직', '안전', 그리고 '스마트'는 명사로서 그 의미적 속성이 서술적이다. 즉 다른 명사가 주어로 쓰이게 되면 이를 서술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명사의 서술적 성격에 대한 장 석진(1993: 49-50)의 분석을 보자.

- |  |          |
|--|----------|
| (12)a. 코끼리가 <sub>SUBJ1</sub> 코가 <sub>SUBJ2</sub> 길다 <sub>AP</sub> .  | (전체와 부분) |
| b. 언어학이 <sub>SUBJ1</sub> 재미가 <sub>SUBJ2</sub> 없다 <sub>AP</sub> .     | (소유/존재)  |
| c. 어머님은 <sub>SUBJ1</sub> 그 사람이 <sub>SUBJ2</sub> 싫으셨다 <sub>AP</sub> . | (심리)     |

그는 (12)의 제2주어가 제1주어와 ( ) 안에 표시된 서술적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부적인 서술 관계와 차원을 달리하여 제2주어와 형용사구의 결합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를 살펴보자. (12a)의 '코가 길다'는



‘코끼리’를, (12b)의 ‘재미가 없다’는 ‘언어학’을, 그리고 (12c)의 ‘그 사람이 싫으셨다’는 ‘어머님’을 서술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성분으로 문장 내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코’와 ‘그 사람’은 본래 서술적 명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문장 내에서 마치 (11)의 명사들처럼 서술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재미’는 본래 서술적 명사이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중주어 구문이  $S_1 \rightarrow NP-S_2$ 의 구조가 아니라  $S \rightarrow NP-AP$ 의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시각을 달리하여 (10)의 쌍으로 이루어진 예들을 살펴보자. (10a’)-(10c’)는 [목적어-타동사]의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동사구 구조이다. 그리고 (10a)-(10c)는 N-하다 = 동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통사적 구조를 가진 동사구의 축약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술어구이기도 하다.

- (13) a. 영수가 [공부를 한다] / [공부한다]. (타동사구)  
 b. 영수가 [간이 크다] / [간 크다]. (형용사구)

(13)은 축약에 의한 어휘와 그에 상응하는 통사 구조가 문장 내에서 서로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13a)에서 [목적어-타동사]로 이루어진 동사구와 그 축약형이 교대로 문장의 서술적 기능을 담당한다. 즉 제1주어의 술어구 노릇을 한다. (13b)에서 [주어-술어]의 구조를 가진 [간이 크다]가 축약된 [간 크다]가 아직 별도의 품사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13a)의 [공부한다]처럼 술어로 쓰이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예는 국어의 많은 어휘가 한자어와 혼용하는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4) a. 英秀[肝大] a'. [[영수는]<sub>SUBJ1</sub> [[간이]<sub>SUBJ2</sub> [크다]<sub>AP</sub>?]s.  
 b. 身土[不二] b'. [[사람과 자연이]<sub>SUBJ1</sub> [[둘이]<sub>SUBJ2</sub> [아니다]<sub>AP</sub>?]s.  
 c. 失言[可惜] c'. [[실언이]<sub>SUBJ1</sub> [유감스럽다]<sub>AP</sub>]s

[간이 크다]는 한자어의 술어구 “肝大”를 우리 고유의 말로 풀어서 쓴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간이 크다]는 문장이기도 함과 동시에 주어의 필요로 하는 술어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예들도 [ ] 안의 부분이 술어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구어체 문장에서 흔히 이런 축약형을 이용한다. 따라서 축약되지 않은 [주어-형용사]로 이루어진 문장, 즉 [간이 크다]가 제1주어의 서술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에 따라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는 자연히  $S \rightarrow NP-AP$ 이게 된다.

본래 형용사는 1함술어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문장을 이루는 데 하나의 명사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명사는 통사적인 면에서 볼 때 목적어가 아닌 바로 주어인 것이다. 그리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 명사는 술어구의 논항인 것이다. 따라서 이중주어 구문의 형용사는 이러한 보편적 속성과 배치되는 특이한 통사적 기능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특이한 속성을 다른 언어에서 예컨대 영어의 tough-구문을 예외적으로 기술하는 것처럼 [주어-형용사구]가 통상의 문장(=S)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예외적인 유형으로 주어를 가진 하나의 서술적 형용사구(=AP)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어지는 2.3에서 논의되는 [주어-형용사구]라는 유형의 자질구조는 완성된 하나의 문장(=S)이라는 통념상의 단순한 유형이 아니라, 비록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주어를 포함하는 서술적 형용사구(=AP[+pred, +subj])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 2.2 완전자동사구와 이중주어 구문

자동사는 완전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동사들은 상위유형으로 자동사구를 가진다. 이 유형은 완전자동사구와 불완전 자동사구를 그 하위유형으로 가진다. 완전자동사<sup>4</sup>도 앞 절에서 논의한 이중주어 구문을 형성한다. 다음은 그 예이다.

- (15) a. 총장로가<sub>SUBJ1</sub> 사람들이<sub>SUBJ2</sub> 항상 봄빈다.  
 b. 주전자가<sub>SUBJ1</sub> 물이<sub>SUBJ2</sub> 샌다.  
 c. 밤이<sub>SUBJ1</sub> 별이<sub>SUBJ2</sub> 잘 보인다.  
 d. 명절에는 친구들이<sub>SUBJ1</sub> 여럿이<sub>SUBJ2</sub> 모인다.

4. 불완전 자동사 '싸우다, 맞서다, 혼인하다, 다투다. 의논하다, 단합하다, 머물다' 등은 선행하는 명사에 '-와, -과, -에서, -으로, -에'와 같은 조사를 요구한다. 반면에 동일한 불완전 자동사 '되다'는 유일하게 선행하는 명사가 조사 '이/가'를 가지도록 요구한다.

- i) 구룡이<sub>SUBJ1</sub> 비가<sub>SUBJ2/COMP</sub> 된다.  
 ii) 열수가<sub>SUBJ1</sub> 희장이<sub>SUBJ2/COMP</sub> 되었다.

명사에 첨가되는 조사에 따라 정의한다면 i)의 비가와 ii)의 희장이는 주어일 수 있다. 그러나 서 경수(1996:440-441)와 김 동식(1984)은 다른 불완전자동사와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명사를 보어(complement)로 취한다는 주장한다. 이 글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다만 다른 불완전자동사와 달리 조사 '-이/-가'를 요구하는 차이는 '되다'의 어휘정보 안에 이를 명시하여 이 어휘가 가진 특이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두 개의 주어를 가지는 완전자동사구가 앞 절에서 논의한 형용사구와 동일한 통사적 행위를 수행하는 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중주어 구문의 분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주어의 생략과 관형화에 따른 통사적 행위를 살펴보자.

(16) 총장로가<sub>SUBJ1</sub> 사람이<sub>SUBJ2</sub> 봄빈다.

- a. ?총장로가<sub>SUBJ1</sub> 봄빈다.
- b. 사람이<sub>SUBJ2</sub> 봄빈다.
- c. ?총장로가 봄비는 사람
- d. 사람이 봄비는 총장로

(17) 주전자가<sub>SUBJ1</sub> 물이<sub>SUBJ2</sub> 샌다.

- a. ?주전자가<sub>SUBJ1</sub> 샌다.
- b. 물이<sub>SUBJ2</sub> 샌다.
- c. ?주전자가 새는 물
- d. 물이 새는 주전자

(16)과 (17)은 완전자동사구가 이중주어를 가지는 경우에 결합하는 순서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용사구에 적용한 방법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16a)와 (17a)는 형용사구의 경우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문장이다. 일단 통사적으로 볼 때 성분의 결합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봄빈다'와 '샌다'의 주체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정보이거나, 또는 공유되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담화의 맥락에서는 수용성이 있으나 독자적 문장으로서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16b)-(16d)와 (17b)-(17d)는 위에 설명한 형용사구와 동일한 행위를 한다.

(18)a. 총장로가 [사람들이 봄빈다]/[사람 봄빈다].

- b. 주전자가 [물이 샌다]/[물 샌다].
- c. 밤이 [별이 보인다]/[별 보인다].
- d. 친구들이 [여럿이 모인다]/[여럿 모인다].

완전자동사구의 축약 현상은 형용사구의 경우처럼 일관성 있게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18a)는 조금은 어색하고, 나머지 문장은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화자의 국어에 대한 직관이나 언어사용의 습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8a)가 부자연스럽지 않은 화·청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면에서 볼 때 이러한 축약은 구어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축약을

용인한다면 축약된 부분은 전체 문장의 술어구의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제2주어-자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는 비록 제2주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1주어의 서술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9) a. 밤이<sub>subj1</sub> 별이<sub>subj2</sub> 보인다.  
 b. \*밤이<sub>subj1</sub> 보인다.  
 c. 별이<sub>subj2</sub> 보인다.

(19b)는 (19a)와 (19c)와는 다르게 술어구가 부실하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 못한다. ‘별이’라는 제2주어가 빠져서 부실한 술어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19c)는 제1주어 ‘밤이’가 빠져 있으나 술어의 기능을 ‘보인다’가 담당하므로 문법적이다. 그러나 (19b)는 동등한 주어인 제2주어가 빠짐으로써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 못하는 반면에 (19a)는 제2주어인 ‘별이’가 들어 있어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 점에서 [별이 보인다]는 비록 제2주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문장 전체의 서술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이를 하나의 술어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2주어-자동사의 결합은 결국 하나의 서술적 자동사구라는 유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완전자동사를 포함하는 이중주어 구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S_1 \rightarrow NP-S_2$ 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S_1 \rightarrow NP-VP$ 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국어의 이중주어 구문과 관련하여 형용사구와 자동사구를 중심으로 그 통사-의미적 속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국어의 형용사와 완전자동사는 일차적으로 제2주어와 결합하여 각각 문장의 구조를 가진 서술적 형용사구와 완전자동사구를 이룬다. 이 서술적 형용사구와 완전자동사구는 다시 제1주어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견해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사에 격(格)의 개념을 부여하고 이 조사의 첨가에 의하여 형태적으로 주어를 정의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통사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통사적 정보란 형용사와 자동사의 분포와 기능, 그리고 형용사와 완전자동사가 가지는 특유의 통사적 예외성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적 정보란 문장이 가지는 진리조건적 의미 이외에 조사가 가지는 주제, 초점과 대조와 같은 화용적 의미 기능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 3. 술어구의 유형과 제약

핵어문법은 언어기호의 각 유형이 가지는 언어적 정보를 바탕으로 구구

조의 유형을 기술한다. 이에 따라 모든 언어 표현은 유형화된 자질구조 (typed feature structure)로 나타내진다. 예컨대 형용사의 통사적 자질구조를 기술하려면 먼저 형용사를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유형들을 통사적 자질구조로 나타낸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이 절에서는 술어구 유형의 일부가 제시된다. 이어서 이중주어 구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술어구의 유형이 가지는 특유의 통사적 속성을 제약으로 제시하여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적 기술을 마무리한다.

- (20)a. 꽃이 [예쁘다]<sub>AP</sub>.
- b. 영수는 [잔다]<sub>VP</sub>.
- c. 영수는 [영화를 좋아한다]<sub>VP</sub>.

(20)은 구구조의 기본적인 유형의 일부로서 형용사구와 동사구가 주어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두 개의 품사가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술하기 위한 전통적인 지혜는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술어라 하고, 이 술어와 주어의 결합으로 문장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술어를 하나의 통사범주로 정의하고 이를 자질구조로 표시하면 동사와 형용사는 별개의 어휘유형으로 구분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주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는 술어구 특유의 통사적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1) 술어의 유형과 자질구조

- a. 술어(=Predicate): VA[**+**v v [**+**a, **+**pred]], [SUBJ <[1NP]>]]
- b. 동사(=V): V[**+**v, **-**a, [SUBJ <[1NP]>]]
- c. 자동사(=V<sub>i</sub>): V[**+**v, **-**a, [SUBJ <[1NP]>], [COMPS < >]]
- d. 타동사(=V<sub>t</sub>): V[**+**v, **-**a, [SUBJ <[1NP]>], [COMPS <[2NP]>]]
- e. 형용사(=Adj): A[**-**v, [**+**a, **+**pred], [SUBJ <[1NP]>]]

(21a)의 VA는 술어성(predicateness)을 나타내는 통사자질이다.  $\pm v$ 와  $\pm a$ 는 각각 동사성과 형용사성의 유무를 나타낸다. 이처럼 동사성과 형용사성을 자질구조의 내부에 들여놓으면 이 두 품사의 구별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품사들이 가지는 술어성 또한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된다. [SUBJ <[1NP]>]는 주어로 [1NP]를 가지며, [COMPS < >]는 결합할 보어가 없음을 나타내어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통사적 속성을 반영한다. 타동사는 자동사의 자질구조와 다르게 [COMPS <[2NP]>]가 들어 있어 하나의 보어, 즉 목적어와 결합하는 타동사의 통사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리고 (21e)의 [+pred]는 부가적(attributive) 형용사와 서술적(predicative) 형용사를 구별하는 자질구조이다. 모든 술어구가 서술성을 가지므로 동사성을 가진 유형에 [+pred]가 나타나야 하지만 표시되지 않은 것은 동사의 서술성은 이미 지정(default)에 의하여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문장이 명사구와 술어구의 결합이라고 보는 지배적인 견해를 따라 문장을 기술하려면 어휘술어의 술어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예컨대 '코끼리의 코가 [대단히 크다].'에서 술어구는 [[대단히] 크다]라는 구구조의 한 유형이므로 여기에서는 구절핵어(phrasal head)의 개념을 도입한다. 술어구 유형의 P는 구절성(phrasality)을 나타낸다.

(22) 술어구의 유형과 자질구조

- a. 술어구: VAP[+[v ∨ [+a, +pred]], [SUBJ <[1NP]>]]
- b. 동사구: VP[+v, -a, [SUBJ <[1NP]>]]
- c. 자동사구: V<sub>i</sub>P[+v, -a, [SUBJ <[1NP]>], [COMPS <>]]
- d. 타동사구: V<sub>t</sub>P[+v, -a, [SUBJ <[1NP]>], [COMPS <[2NP]>]]
- e. 형용사구: AP[-v, [+a, +pred], [SUBJ <[1NP]>]]

(22)는 술어구의 구절유형(phrasal type)이 가지는 정보의 일부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VAP[+[v ∨ [+a, +pred]], [SUBJ <[1NP]>]]로 표기된 술어구라는 유형은 술어구 VP와 AP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것이다. 이 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술어구로써 하나의 주어의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모든 술어구의 통사적 속성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술어구는 상위유형(supertype)이며 동사구와 형용사구는 그 하위유형(subtype)이다. 자동사구와 타동사구는 역시 동사구의 하위유형이다. 형용사구는 동사구와 동등한 수준에서 술어구의 하위유형이다. 이처럼 술어구의 기능을 하는 유형들은 상하간에 그 위계(hierarchy)를 가진다.

(21)와 (22)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예컨대 하위유형인 타동사구는 술어성(=[+v, -a])과 하나의 주어를 취하는 속성(=[SUBJ <[1NP]>])을 상위유형인 술어구와 동사구와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타동사구는 그 고유의 정보로 목적어를 가진다는 사실(=[COMPS <[2NP]>])이 드러나 있다. 이는 하위유형으로 내려가면 그 하위유형은 적어도 그 상위유형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거나, 아니면 고유의 정보로 인하여 그 정보가 더 많아지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하위유형이 상위유형과 공유하는 정보는 실제로 여러 개의 상위유형으로부터 전수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다중전수(multiple inheritance)라 한다.

이제 이중주어 구문을 통사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핵어문

법의 보편적인 제약을 살펴보자. 제약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법이론의 보편적인 원리(principle)나 규칙(rule)이나 도식(schema)은 임의의 구조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부과하는 일종의 규제 조항이다. 그래서 단순한 구조의 유형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를 기술하려면 구성성분들의 결합 관계와 그에 따른 보편적인 제약이 필요하다. 아래에 제시된 보편적인 제약은 이 구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다.

(23) a. 핵어-주어 도식 (Head-Subject Schema)

$X \rightarrow \text{Head-Dtr Phrase, Subj-Dtr}$   
[COMPS < >]

b. 핵어-표지어 도식(Head-Marker Schema)

$X \rightarrow [\square] \text{Head-Dtr Phrase, Marker-Dtr}[\text{SPEC } \square]$   
[COMPS < >]

c. 핵자질원리

$hd-ph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HEAD} \quad \square \\ \text{HD-DTR} \quad [\text{HEAD } \square] \end{array} \right]$

d. 항가원리 (Valence Principle)

<i>hd-ph</i>								
SUBJ	/□							
SPR	/□							
COMPS	/□							
HD-DTR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SUBJ</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SPR</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COMPS</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SUBJ	/□	SPR	/□	COMPS	/□
SUBJ	/□							
SPR	/□							
COMPS	/□							

(23a)는 주어인 명사구와 형용사구가 결합하는 것을 보장하는 관할도식(dominance schema)이다. (23b)는 핵자범주와 표지어자범주의 결합을 보장하는 도식이다. (23c)는 구절기호의 핵자질과 핵자범주의 핵자질이 동일하다는 핵자질원리이다. (23d)의 항가원리는 핵어구의 주어(SUBJ), 명사사(SPR)와 보어(COMPS)의 값은 핵자범주와 동일하다는 제약이다. / 표기는 다른 제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다른 값으로 주어지면 지정에 의하여 이미 주어진 값이 파기(defeasible)되어 다른 값이 이를 대신하는 것을 나타낸다. Sag(1996b)과 Lascardes et al.(1996)은 이처럼 유형에 따라 가변적인 제약을 연제약(soft constraint)라 부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제약을 경제약(hard constraint)라 한다.

이러한 보편 제약의 바탕 위에서 단주어-형용사구 유형을 기술하려면

우선 명사구와 형용사구의 자질구조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국어의 명사구는 명사(noun)와 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조사는 영어의 통상적인 표지어(marker)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어순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이런 점에서 후치사인 조사를 표지어 자질의 값으로 나타내고, 자질 SPEC(=SPECIFIED)은 명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23b)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명사구를 보장한다.

이제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다만 이 구문이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주어물 가진다는 사실은 하나의 주어물 가지는 것과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22)에 보인 일반적인 술어구의 유형을 더욱 세분하여 새로운 구구조 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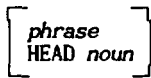
(24) 구구조의 유형 (일부)

- a. 단주어-형용사구                      b. 단주어-자동사구
- c. 이중주어-형용사구                    d. 이중주어-자동사구

(24)는 이중주어 구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구조 유형의 일부이다. 형용사구와 자동사구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하나의 주어물 취하는 유형과 두 개의 주어물 취하는 유형이 가능하다. 다중주어 구문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유형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제 단주어-형용사구 유형의 구성성분의 자질구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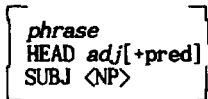
(25) a. 명사구: 코



b. 조사: -이/-가 (-은/-는)



c. 형용사구: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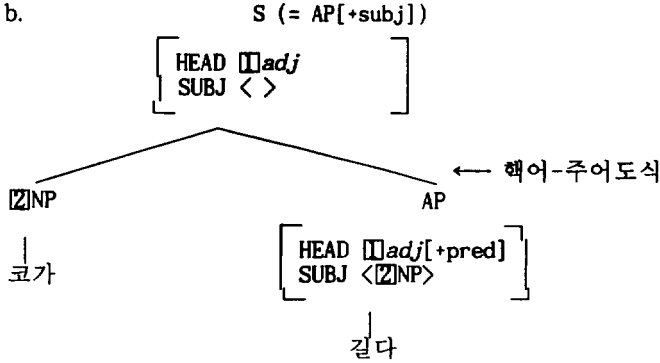


(25a)는 명사의 자질구조를 나타내며, (25b)는 국어의 조사를 표지어로 다루므로 가지는 자질구조이다. 이 구성성분들은 핵어-표지어 도식에 의하여 명사구 '코가'를 보장한다. 그리고 (25c)는 어휘핵어(lexical head)인 형용사 '길다'가 형용사구로 전환된 구절핵어(phrasal head)의 자질구조를 나타낸다. 이 구절핵어 '길다'와 주어인 명사구 '코가'는 핵어-주어 도식에 의



하여 하나의 문장으로서 포화구가 된다.

(26)a. 코가 길다.



핵어-주어 도식은 술어구로 기능 하는 형용사구와 주어인 명사구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핵자질원리(Head Feature Principle)는 핵어와 모범주의 HEAD 값이 동일한  $\square$ adj를 가지도록 제약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항가원리는 구절핵어 AP(SUBJ < □INP >)]가 주어 □INP와 결합하여 포화된 구(=AP(SUBJ < >)]인 문장이 되도록 결합 관계에 있어서 역시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두 개의 원리는 두 개의 도식과 함께 형용사구 유형이 가지는 자질구조에 제약으로 작용하여 단주어-형용사구 유형의 구조를 간단히 기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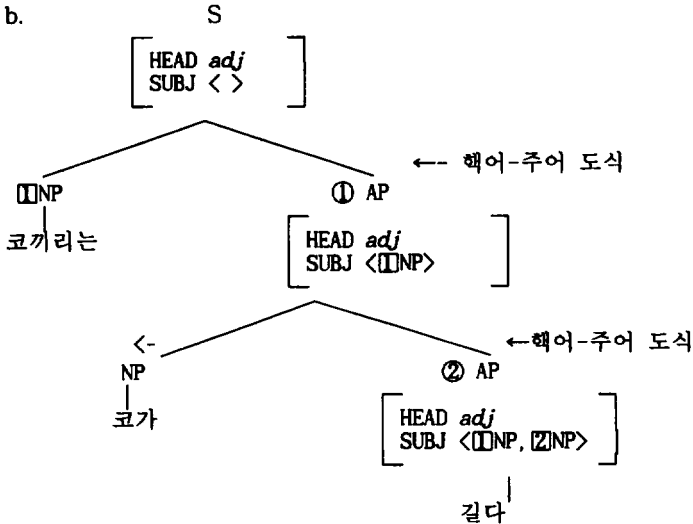
이중주어-형용사구 유형을 기술하는 것은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단주어-형용사구 유형의 최상위 교점인 S의 통사적 특성은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교점은 자질구조 상에서 이미 주어를 포함한 포화구임과 동시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형용사구로서 술어구인 것이다. 이는 만일 어떤 주어가 존재한다면 그 주어를 선택할 수 있는 형용사 고유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앞 절에서 논의한 형용사구의 특이한 통사적 행위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형용사와 제2주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다시 제1주어의 술어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꾸어 말해서 완전히 포화된 술어구라 하더라도 이 술어구가 형용사구라면 이 전체 술어구, 즉 최상위 교점의 AP(SUBJ < >)]는 또 하나의 다른 주어가 있는 경우라면 이 주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결과적으로 이중주어 구문을 대주어-소주어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는 견해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고 하더라도 Pollard & Sag(1994)의 자질 체계와 제

약으로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포화된 술어구의 구절핵어는 항가원리에 의하여 항가자질을 삭제할 뿐이지, 결합하려는 새로운 주어항가자질로 만들어 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휘핵어만이 항가자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술어구의 자질구조 내의 어느 곳에도 주어를 새로운 항가자질의 하나로 표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첫째 어휘핵어의 항가자질 안에 제1주어와 제2주어를 [SUBJ1 <□□ NP>, SUBJ2 <□□ NP>]처럼 넣어주는 일이다. 장 석진(1993)은 이 방법을 택하여 어휘 형용사로 하여금 두 개의 주어를 하위범주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어휘핵어인 형용사는 [SUBCAT <NP1, NP2>]를 가진다.

(27)a. 코끼리는 코가 길다.



(27a)를 기술하기 위하여 ②AP의 내부의 핵어로 하여금 [SUBJ <□□ NP, □□ NP>]처럼 두 개의 주어를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항가원리로 하여금 제2주어와 제1주어의 순서로 상위 교점에서 삭제되도록 하여 최상위 교점에서 완전히 포화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술어구의 자질구조를 이용하여 단주어 구문을 기술한 방법에 어떤 제약이나 장치도 더한 것이 없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어휘핵어 '길다'는 모든 형용사가 그러하듯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어만을 가진다. 근본적으로 두 개의 주어를 가지는 어휘유형이 아니다. 그러므로 (27b)에서 두 개의 주어를 가지도록 한 것은 형용사가 하나의 주어만을

가진다는 보편적 현상을 파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현상을 예외적으로 기술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특이한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여기에 새로운 어휘규칙을 만들어 단어 '길다'가 항가지질로 두 개의 주어를 가지도록 하면 항가지질과 관련되는 문제를 일단 피해 갈 수는 있다. 그러나 형용사가 하나의 주어만을 가진다는 언어보편적 사실과 제1주어인  $\square$ NP는 앞 절의 긴 논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어휘핵어 '길다'의 주어가 아니라  $\textcircled{1}$ AP의 [코가 길다]의 주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구문과 단주어 구문을 별개의 구구조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유형에 별도의 제약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구구조를 유형으로 교차 분류하고, 이 유형에 가해지는 제약과 다항전수에 의하여 기술하는 방법이다. (28)은 보편적인 술어구의 유형과 그 제약의 일부이다.

(29) 술어구의 유형과 제약 (일부)

a. 술어구

$\left[ \begin{array}{l} \textit{phrase} \\ \text{HEAD VP}[+v \text{ } +a] \\ \text{SUBJ } \langle \square \text{NP} \rangle \end{array} \right]$

b. 동사구

$\left[ \begin{array}{l} \textit{phrase} \\ \text{HEAD VP}[fin] \\ \text{SUBJ } \langle \square \text{NP} \rangle \end{array} \right]$

c. 서술형용사구

$\left[ \begin{array}{l} \textit{phrase} \\ \text{HEAD AP}[+pred] \\ \text{SUBJ } \langle \square \text{NP} \rangle \end{array} \right]$

d. 완전자동사구

$\left[ \begin{array}{l} \textit{phrase} \\ \text{HEAD VP}[fin] \\ \text{SUBJ } \langle \square \text{NP} \rangle \end{array} \right]$

(28a)는 상위유형으로 모든 술어구가 가지는 공통적인 정보를 가진다. (28b)와 (28c)는 각각 동사구 유형과 서술형용사구 유형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28a)의 하위유형이다. (28d)는 (28a)와 (28b)의 하위유형이다. 이러한 유형들의 제약은 해당 유형의 제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하는 상하 유형과 연계된다. (28)의 상하 유형간에 이루어지는 다항전수는 모든 유형에 [SUBJ  $\langle \square \text{NP} \rangle$ ]로 표시된 정보이다. 바꾸어 말해서 모든 술어구는 동사구나 형용사구를 막론하고 주어인  $\square$ NP와 결합하는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26c)는 서술형용사구 유형으로 (28a)의 하위유형이다. 이 유형은 하나의 주어와 형용사구의 결합이라는 정보를 자질구조로 가진다. 이는 (26a)와 같은 단주어-형용사구 유형의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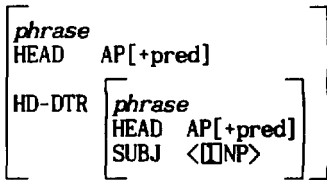
여기에서 우리는 (28)의 술어구의 유형이 가지는 통사적 특성과 구구조

의 유형에 따른 제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술어구의 특성을 보면 모든 술어구는 그것이 동사구이건 형용사구이건 주어틀 가지므로 [SUBJ <[1]NP>]로 표기되었다. 주어틀 가진다는 이 속성은 모든 술어구 공통의 특성이므로 이를 상위유형으로부터 하위유형으로 전수되는 정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하기 위하여 이 구문이 가진 통사적 특성을 반영하는 제약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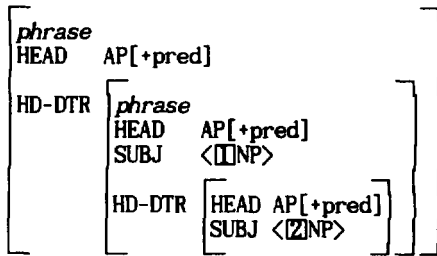
앞에서 우리가 요약한 바 있는 이중주어 구문은 i) 형용사와 완전자동사를 술어로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구문이며, ii) 제1주어는 제2주어와 형용사구나 자동사구의 일차적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술어구의 주어이고, 제2주어는 그 하위에 있는 형용사구나 자동사구의 주어이다. 그리고 iii)이 구문에 간여하는 어휘핵어인 형용사와 완전자동사는 하나의 주어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29)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단주어와 이중주어 구문을 별도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설정하고 이 유형들이 가지는 통사적 속성을 제약으로 나타낸 것이다.

(29)형용사구와 완전자동사구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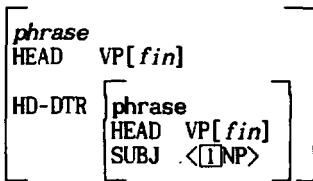
a. 단주어-형용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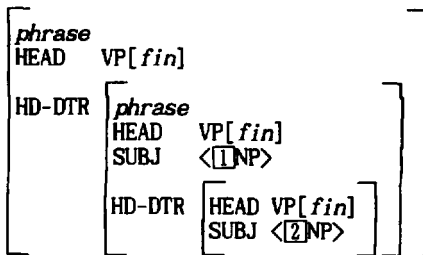
b. 이중주어-형용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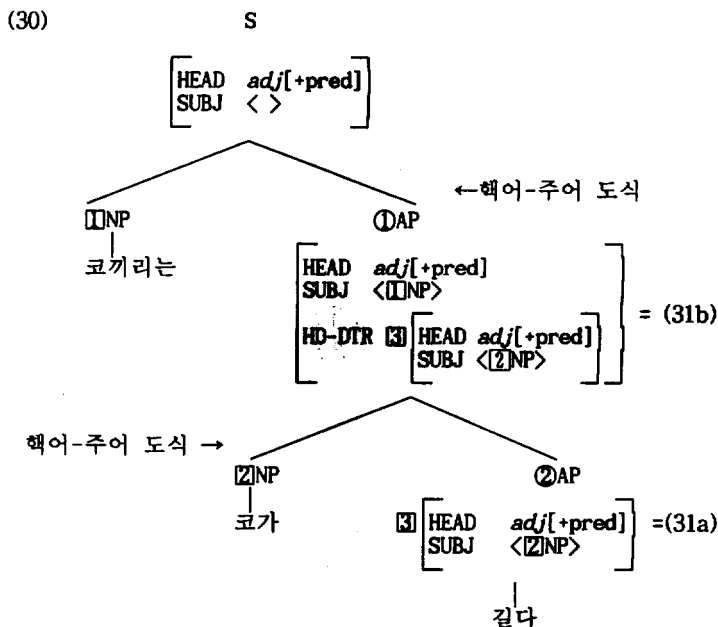
c. 단주어-완전자동사구



d. 이중주어-완전자동사구



(29)의 [SUBJ <[NP]>]은 모든 술어구가 공통으로 가지는 (28)의 상위유형의 제약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술어구의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단주어-형용사구 유형은 다항전수에 의한 (29a)의 제약과 이에 관련된 보편적 제약으로 기술된다. (26)은 그 예이다. (29b)의 [SUBJ <[NP]>]은 제1주어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술어구의 다항전수에 의한 것과 동일하다. 제2주어에 해당하는 [SUBJ <[NP]>]는 AVIM 내부의 HD-DTR의 SUBJ의 값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제2주어와 형용사구의 일차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술어구로서 그 내부의 핵자범주가 제2주어를 포함한 형용사구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중주어를 가진 형용사구의 유형도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제약이 제시될 수 있다. 이제 이중주어-형용사구 제약을 (27b)에 반영해 보자.



(30)은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②AP는 단주어-형용사구 제약과 핵어-주어 도식에 의하여 ①AP를 형성한다. 이어서 이중주어-형용사구 제약과 핵어-주어 도식에 의하여 ①AP과 제1주어인 [NP]은 마지막 문장을 형성한다. 핵자질원리는 [adj[+pred]]가 어휘핵어로부터 전수되어 마지막 S가 형용사구임을 보장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①AP의 HD-DTR은 이미 제2주어와 결합하여 주어를 포함하는 형용사구라는 사실을 대역기호 ③을 이용한 구조공유(structure sharing)에 의하여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부의

[SUBJ <②NP>]는 ②AP의 [SUBJ <②NP>]와 동일한 주어라는 정보만을 나타낸다. 이 결합 과정에서 항가원리는 ②AP의 항가자질인 주어의 값인 ②NP를 삭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①AP에서 핵자범주와 동등한 수준에서 필요한 항가자질은 [SUBJ <①NP>]인 것이다. 그러므로 ①AP의 내부에 나타난 ②NP가 마치 항가원리를 위반한 것처럼 보아서는 안된다. 항가원리는 핵자범주와 결합하는 항가자질에 작용하는 원리이며, 마지막 S로 하여금 완전한 포화구가 되도록 보장한다. 이처럼 형용사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제약율 제시하고 다항전수의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기술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주어 구문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i) 형용사는 통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술하려는 명사가 하나이며,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1항술어로서 하나의 논항만을 취한다는 언어보편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형용사가 마치 두 개의 주어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ii) 이중주어 구문에 있어서 제1주어는 일반적인 형용사구의 단순한 주어가 아니라 제2주어와 결합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의 주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한다. iii)술어구 유형의 공통점을 형용사구의 제약으로 설정한 것은 구조의 다항전수에 의하여 상위유형과 하위유형 간에 통사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iv) 이러한 기술 방법을 도입하여 확장하면 국어의 다중주어 구문도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변형이론은 이러한 구문을 여러 단계의 도출 과정과 격대체(case alternation)와 같은 조건을 필수적으로 제시하여 기술하지만 여기에서 제시한 방법은 전혀 그와 같은 복잡한 도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바꾸어 말해서 다항전수의 개념을 유형별 제약에 반영하여 여러 유형의 구구조를 경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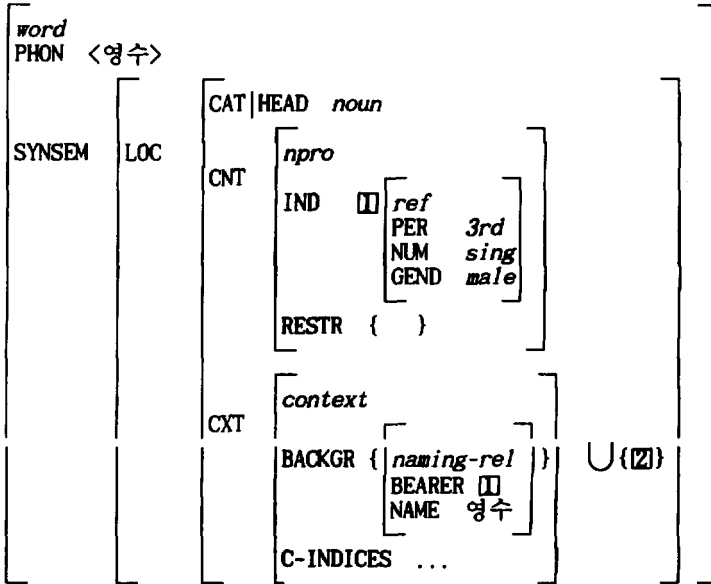
완전자동사구와 관련된 단주어 구문과 이중주어 구문을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완전자동사구 제약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자질구조 [HEAD VP[*fin*]]와 형용사구의 자질구조 [HEAD adj[+pred]]는 그 내용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통사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모두 1항술어로서 술어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형용사구의 유형과 그 통사적 행위가 다를 바 없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적 기술

이미 우리는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적 정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를 형식화하고 동시에 이 정보에 가해지는 보편적 제약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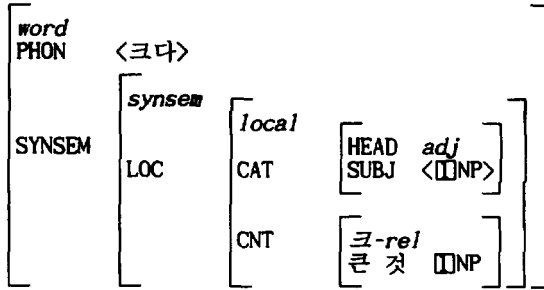
한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의미적 정보를 기술한다. 이를 위하여 이 구문에 관계하는 고유명사, 어휘핵어와 조사의 언어정보를 순서적으로 기술한다. 먼저 고유명사 '영수'의 의미적 정보를 보자.

(31) a. 고유명사 '영수'



'영수'의 진리조건적(truth-conditional) 의미는 의미내용(CNT) 내에 표시된 바와 같이 3인칭 단수 남성이다. 이 정보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의미제약(RESTR)의 값은 공집합이다. 그리고 화용적 의미는 명사의 화맥 정보(CXT) 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그 배경적 정보(BACKGR)이다. 이 정보는 명명(命名) 관계에서 그 이름은 '영수'이고, □로 나타낸 지시체가 '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나타낸다. 화맥적 지표(C-INDICES)는 직접적인 어떤 정보를 보여 줄 것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화맥 정보의 전체 값이 { [2] }와 합집합으로 표시된 것은 고유명사가 가진 화용적 정보와 이 명사와 결합하는 조사의 화용적 정보가 합해져서 명사구 전체의 화용적 정보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다음 (3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가 가진 각 화용적 정보들이 이 { [2] }에 해당한다. (31a)로 표시된 영수의 모든 의미는 술어구의 의미와 결합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형성한다. 다음은 형용사, '크다'의 통사-의미적 정보이다.

b. '크다'



형용사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관계(relation)와 의미역활(semantic role)에 의하여 그 정보를 나타낸다. '크다'는 1항술어이므로 '크다'라는 관계와 그 의미역활로 주어인 □NP가 '큰 것'의 역할을 한다. 의미원리는 이러한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의미를 보장한다.

(32) 의미내용 원리 (Content Principle)

핵어구에 있어서 의미핵어(semantic head)의 CNT는 모범주의 CNT와 동일하다.

이 원리는 진리조건적인 의미에만 관계한다. 의미핵어는 술어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를 가리킨다. 예컨대 '영수가 크다'라는 표현에서 의미핵어는 '크다'이고, 그 의미는 (31b)의 CNT의 값으로 나타내진 것이다. 이 값은 의미원리에 의하여 모범주 즉 '영수가 크다'의 CNT 값이 되어 전체 문장의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양화사(quantifier)가 들어 있는 구구조의 의미를 기술하려면 실제로 이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원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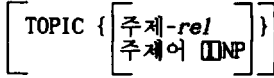
국어의 조사 '-은/-는'과 '-이/-가'의 특별한 화용적 의미를 가진다. 이 조사들은 이미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명사의 의미에 주제, 초점, 혹은 대조라는 화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CNT의 값의 일부로 나타낸다. 이 정보들은 보편적인 배경정보(BACKGR)와 다르기 때문에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도의 자질로 주제(TOPIC), 초점(FOCUS)과 대조(CONTRAST)를 설정한다. 물론 그 값은 관계와 의미역활로 이루어진 *psoa*(parameterized state of affairs)이다. 이 정보들은 각각 주제-*rel*, 초점-*rel*, 대조-*rel*이라는 특수한 관계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를 □NP로 표시된다.



(33) 조사의 화용적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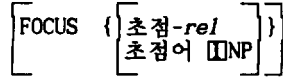
a. '-은/-는'

주제:



b. '-이/-가'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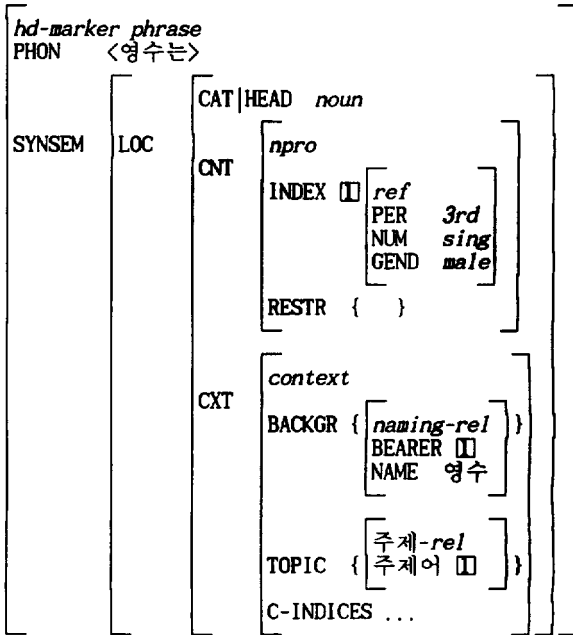
대조:



이 정보들은 실제로 (31a)의 {㉔}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사와 (31a)의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명사구의 의미적 정보는 조사의 화용적 정보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적 정보의 합집합이 된다.

(34)a. 영수는

b.



'영수는'의 화용적 정보는 '영수'와 '-는'이 가진 화용적 정보의 합집합이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정보만을 기술한다. 초점과 대조

라는 정보도 동일한 수준의 화용적 정보이므로 주제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하면 된다. 조사의 화용적 의미는 명사구의 의미에 포함되어 문장 전체의 의미에 기여할 때 그 의미를 완전하게 반영하게 된다. 즉 조사의 화용적 정보가 명사구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하더라도 문장 전체의 의미에 기여해야 한다. Pollard & Sag(1994: 333)의 화맥일관성의 원리(Principle of Contextual Consistency)는 화용적 정보의 전수에 대한 제약이다. 이 제약에 주제, 초점과 대조가 포함되도록 하면 이러한 정보의 전수는 보장된다.

(35) 화맥일관성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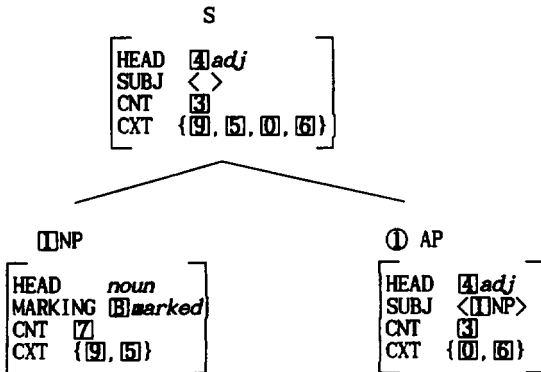
주어진 구구조의 CXT:BACKGR & {TOPIC ∨ FOCUS ∨ CONTRAST}의 값은 자범주의 CXT:BACKGR & {TOPIC ∨ FOCUS ∨ CONTRAST}의 값의 합집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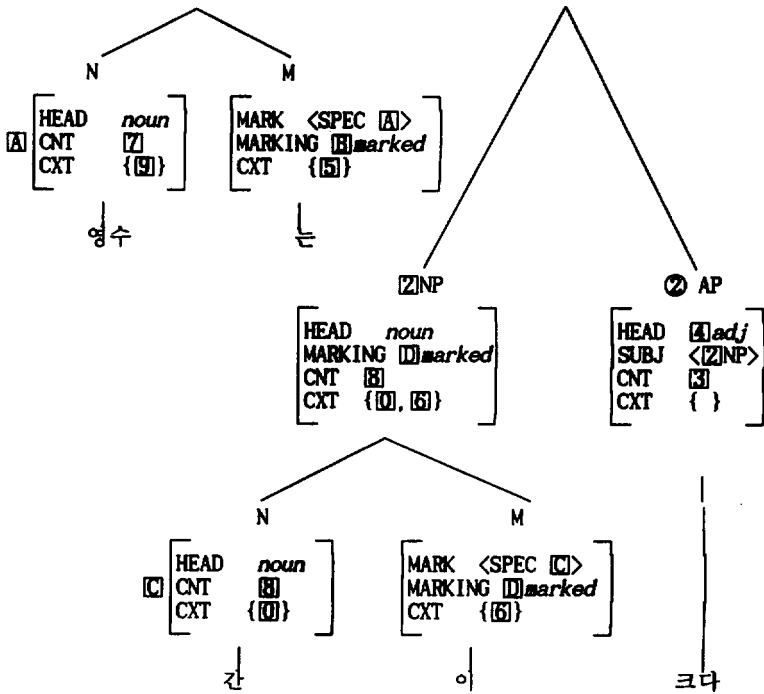
주제, 초점과 대조 등의 정보는 앞에서(=2절의 (4))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서로 상보적(complementary)이어서 오직 한 번씩 나타나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중복하여 나타내야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중주어 구문을 통사-의미적으로 기술할 차례이다. 이 작업은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해당 기호의 AVM 내의 본래의 타당한 위치에 해당되는 정보로 넣어 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관련되는 조사의 의미적 정보는 주제와 초점이지만 조사의 여러 가지 결합에 따라 달라지는 화용적 의미는 각 조사에 해당하는 정보로 대치하면 그 화용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게 된다.

(36)a. 영수는 간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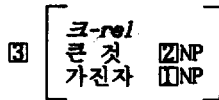
b.





이 수형도는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와 의미적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의미원리와 화맥일관성의 원리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기여한다. [CNT 3]는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37)의 정보를 가진다.

(37) 형용사구 '크다'의 CNT:



의미원리는 의미핵어와 문장의 CNT 값이 동일하도록 하는 제약이다. 그 결과 문장 전체의 의미는 '큰 간을 가진 자가 영수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화맥일관성의 원리는 자범주 [1]NP와 [Z]NP가 가진 화용적 정보인 주제를 나타내는 [CXT {5}]와 초점을 나타내는 [CXT {6}]를 모범주에서 모두 모아 놓은 합집합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최상위 교점인 S에서 [CXT {5, 6}]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이 가지는 주제와 초점에 대한 정보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두 개의 주어 '영수'와 '간'이 가

지는 화용적 의미를 각각 [CXT {㉑}]와 [CXT {㉒}]이라고 가정하면 이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상위 교점에 차례로 전수되어 최상위 교점의 화용적 의미는 [CXT {㉑, ㉒, ㉓, ㉔}]이 된다. 이제 (39)는 '영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간이 큰 사람이다.'라는 의미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의미원리와 화맥일관성의 원리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 5. 결론

국어의 이중주어 구문은 통사-의미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는 구조이다. 이 논문은 이 특이한 구문에 대한 통사적인 분석을 위주로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이 구문이 가지는 통사와 의미의 두 국면을 통합하여 구절 기호의 유형 분류와 그 제약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술어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자질구조를 제약을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서술적 형용사구와 완전자동사구의 유형에 가해지는 제약은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이 유형을 기술하는 과정에 다항전수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 결과 이 글에서 일일이 적시하지 않았지만 서 정수(1996)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변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중주어 구문이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을 원만하게 기술하였다. 이는 적어도 이 구문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통사적 기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통사-의미적인 정보를 통합적 기술하는 것이 언어 현상을 제대로 포착하여 반영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 동식. 1984. "동사 '되다'의 연구," 국어국문학 92.  
 박 효명. 1995. "영어 Wh-의문문 구조의 제약기반적 분석," 언어학 3, 151-192, 대한 언어학회.  
 박 효명. 1996. "핵어문법의 새로운 전개," 어학교육, 25-2, 1-50,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서 정수. 1996. 현대 한국어문법 연구의 개관(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장 석진. 1993a. 정보기반 한국어 문법. 광주: 언어와 정보.  
 장 석진. 1993b. 話用과 文法. 서울: 탑 출판사.  
 장 석진. 1994. 通合文法論--談話와 話用-.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Li, Charles N., and Sandra A. Thompson. 1975.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Pollard, Carl, Robert Kasper & Robert Levine. 1994. *Studies in Constituent Ordering: Toward a Theory of Linearization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Research Proposal to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Pollard, Carl and Ivan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lard, Carl & Ivan Sag. 1996. HPSG: Background and Basics.(ms)
- Riehemann, Susanne. 1993. "Word Formation in Lexical Type Hierarchies: A Case Study of *bar-Adjectives* in German, ".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 Reape, Mike. 1994. "Domain Union and Word Order Variation in German," in J. Nerbonne, K. Netter and C. Pollard, eds., *German Grammar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SLI Lecture Notes Series 46: 151-197.
- Sag, Ivan A. 1997.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ms).
- Sag, Ivan A. 1996a. Notes on Phrases (ms).
- Sag, Ivan A. 1996b. Notes on the Lexicon (ms).
- Sag, Ivan A. 1996c. Taking Performance Seriously (ms).

박 효 명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hpark@chonnam.chonnam.ac.kr

Fax: +82-62-520-6668